

강원도 오음산 산신제의 현 실태 및 향유자 의식에 따른 집단무의식*

- 월운리를 중심으로 -

강명혜**

|| 차례 ||

- I. 서론
- II. 오음산 산신제 실상
- III. 향유자 의식을 기반으로 한 집단무의식(아키타입)
- IV. 결론

【 】

강원도 오음산(五音山) 산신제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 채록, 연구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오음산 산신제의에 대해 조사, 채록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여기에 내재되고 있는 향유자들의 입장이나 집단무의식, 의미 등도 조사해서 그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오음산은 930m의 산으로 횡성, 홍천에 걸쳐서 있으며, 홍천 쪽 마을은 월운리이다. 월운리는 진평마을(월운리 1, 2, 3, 4반)과 공주터 마을(월운리 5, 6리)로 나뉘는데, 산신제는 따로 지낸다. 그 이유는 오음산에서 내려온 산줄기를 기준으로 마을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 두 마을 제의는, ①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제의라는 점, ② 제물로 황소를 올린다는 점, ③ 예전에는 황소를 통 마리로 올렸지만 현재는 황소머리만 올린다는 점, ④ 여산신이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8205).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라 술 대신 감주를 사용하며, ⑤ 간단한 주과포와 떡(공주터 제물수가 조금 더 많음)을 올린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공주터 제물수가 조금 더 많다는 점, 진평마을에서는 떡을 올린다는 점, 제의 시간이 차이난다는 점 등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또한 ‘오음’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채록되었지만, ‘신성하고 영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은 동일했다. 오음산 여신이 지나는 인식이나 그 태도를 분석한 결과,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향유자들의 의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여산신이 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부정적인 측면이었다. 여산신이라서 동물을 감춰주며, 산삼도 많이 내주고, 영험하며,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우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고, 마을을 평화롭게 지켜주며, 너그럽고, 물이 흔하며, 치성을 드리면 비를 내려준다는 의식은 긍정적 징표이다. 거기에 비해서 부정적인 향유의식으로는 오음산 신은 여신이라 욕심이 많아 움켜쥐면 내주지 않아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산짐승을 잡을 수 없다는 것과 여자라서 질투심이 많아 여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도 남자들만 원한다는 점, 그리고 여신이라서 파야지만 물을 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을 규명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지모신에 대한 편린이 집단무의식화되어 전해진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조선조 ‘남존여비’ 사상이 집단무의식화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결론내릴 수 있다. 지모신격의 여산신은 중도에 젠더로서의 여성성이 파괴되면서 신성성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본다. 이렇듯이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주민들의 향유의식은 상반된 양가적 의식이 날썩썩줄로 엮이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점차 사라져가는 산신제를 채록해서 소개하고 기록하려는 목적이 우선이므로 본고에서는 향유자적 의식 부분을 소략하게 다룬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후고에서 보다 세밀히 천착해서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오음산, 의례, 동제, 산신제, 여신, 설화, 향유자, 집단무의식, 희생제물 황소

I. 서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지속되어 온 전통 사상이나 행위 등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전통사상이나 행위를 확장하고 표면화해서 국가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음성적으로, 그것도 몇

몇 사람들에 의해 명맥을 잇고 있으며 점차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사상이나 행위에는 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제의의가 해당된다. 특히 산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산 신앙이 지속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추이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민속 제의를 축제와 융합시켜서 번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동제는 이장을 비롯한 몇 분에 의해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의식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축소되기 전에 채록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전통 의식 중 특히 산신 제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 신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산신제의를 택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 채록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하며, 의례의 의미나 의례에 내재한 집단무의식(archetype)적 측면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산신제의를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나 시각, 생각 등 향유자들의 입장도 밝혀 보고 여기에 내재된 집단무의식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 중 하나이다. 조사, 채록 및 연구 대상은 높은 산이 많아서 산신제가 비교적 현재까지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 그것도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오음산' 산신제를 대상으로 한다. 오음산은 횡성과 홍천에 걸쳐서 있는 산인데 본 연구자는 홍천 쪽 지역인 월운리의 오음산 산신제의만을 다루고자 한다.

홍천지역 오음산 밑 마을은 월운리이다. 즉 월운리 주산은 오음산인데, 오음산은 횡성과 홍천 두 지역에 걸쳐서 위치해 있다. 홍천 쪽은 동면 월운리 절골, 공주터와 홍천읍 삼마치리 원터, 짜리재골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횡성은 공근면 상창봉리 너래실(늘어실) 사기점골에 걸쳐 있다. 이 중 본 연구가 홍천 동면 월운리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월운리 산신제는 6.

25 사면 동안만 잠시 중단했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중단된 점이 없으며 지금까지도 한 마을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산신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의 산신제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를 조사, 채록, 연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오음산 산신제의에 대해 조사, 채록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하며, 여기에 내재하고 있는 향유자들의 입장이나 집단무의식, 의미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주로 주민들 인터뷰를 채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II. 오음산 산신제 실상

산 제의나 산치성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특히 ‘단군은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상기할 때 국가 형성 시부터 산신에 대한 경배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산신 신앙을 알려주는 金石文 자료는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 성현리에 있는 점제현신사비이다. 이는 AD 1세기 경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산신에게 점제현 지방을 도와주고 농사 잘되고 도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¹⁾ 산신의 신체가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서술산 성모이다. 서술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높이 390m의 산이다. 이 서술산 산신이 신라시조 혁거세를 탄생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 강영경, 『한국 고대 산신신앙에 나타난 이상인간형』, 『종교와 문화』 7권,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 p.156.

“說者が 이르기를 이는 西述聖母가 탄생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화인이 선도성모를 찬할 때 ‘娠賢肇邦’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가야산의 정현모주도 산신에 내포되어 있는 어머니의 관념을 드러내준다. 한성의 母岳, 광주의 대모산, 청풍의 婦山, 진천의 대모산성, 공주의 모악산, 결성의 모산당, 금구의 못악산, 옥구의 모산, 평산의 자모산, 순창의 대모산²⁾ 등이 있다. 이외에도 모산, 모구 등의 산명이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주에서 골매기란 영남지방에서 일컫는 마을 창건신이거나 마을 시조신을 가리키는데 골매기 산신 할매는 산신신앙의 고향을 간직하고 있다.”³⁾

“치슬령은 높이 765m로 경주시 외동면에 있다. 치슬산신모 신라 제18대 實聖王(402~417)이 고구려와 왜에 卜好와 未斯欣을 불모로 보냈다. 이들을 구하고 왜에서 죽은 박제상의 부인이 그를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해 세 남자를 거느리고 치슬령에 올라 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어서 치슬산의 신 모가 되었으며 일언이 삼국유사를 쓴 고려후기에서 치슬산 신모의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⁴⁾

위의 기록처럼 우리나라 산에는 많은 산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신격은 특히 여산신이 많다. 그렇다면 산이 유난히 많은 산악지대인 강원도는 어떠할까? 당연히 강원도는 유독 산이 많기 때문에 산신제가 발달해 있다.⁵⁾ 그러나 실상이나 실태가 상세히 조사 보고된 산신제는 얼마 되지

2) 김갑동, 「고려시대 순창의 지방세력과 성황신앙」, 『한국사연구』 97권, 1997.

3) 김태근,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pp.479-494.

4) 『삼국유사』 기이 1, 나물 왕 김제상조.

5) 동계와 관련된 전국적 규모의 총체적인 조사보고서는 1995년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한국의 마을제당』이 거의 유일하다. 이 보고서는 1967년도에 당시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문조사한 회수 질문지를 토대로 해서 작성되었다. 우선 1995년에 첫 번째로 <서울·경기편>을 발간했고, 2년 뒤인 1997년에 <강원도편>을 발간했다. 그 후 7권이 더 발행되어 총 9권을 발행했다. 발행 주기는 1~2년으로서 2004년 경상북도편이 마지막으로 발행되었다. 1997년에 발행된 『한국의 마을제당』 <강원도편>이

않는다. 세간에 많이 알려진 산신제로 유명한 것은 태백산 산신제, 강릉 산신제, 홍천 내면 권대감 산신제, 치악산 산신제, 두타산 산치성제(선우물), 심메마니 산신제 등이다. 산신 정체가 제시된 산신제는 유명하며 널리 알려져 있다. 강원도에서는 특히 태백산 산신제가 유명하다. 태백산에 대한 제의는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전부터이지만 단종 사후(1441-1457) 단종임금이 태백산 산신으로 좌정했기에 태백산 산신은 현재단종으로 알려져 있다. 강릉의 대관령산신제도 유명하다. 김유신장군을 산신으로 섬긴다. 또한 홍천 권대감 산신제도 강원도에서는 유명하다. 치악산 동약제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지속된 유명한 산신제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높고 낮은 산에는 뚜렷한 산신명은 없지만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 많다. 이들을 채록해 놓는 일은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민속제와의 마찬가지로 산신제도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민간습속인 산신제도 발굴해서 채록해 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본 연구자는 강원도 홍천과 횡성에 걸쳐 있는 오음산 산신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五音山은 漢江岐脈 중 하나이며,⁶⁾ 홍천 동면 월운리 절골, 공주터와 홍천읍 삼마치리 원터, 싸리재골 그리고 횡성 공근면 상창봉리 너래실(늘어실) 사기점골에 걸쳐 있는 최저257m에서 최고 930m까지 고도 차이를 보이는 산이다. 오음산 오른쪽 상봉은 매처럼 생겼다하여 ‘매봉’이라 부르고, 왼쪽봉우리(현재 국인 통신시설이 있음)는 해방 후부터 밤마다 등대처럼 불을 밝힌다 하여 ‘갓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조사 기록에 의하면 산신의 신격 중 여신이 남신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6) 漢江岐脈이란 백두대간의 오대산 두로봉에서 분기하여 인간의 때가 거의 타지 않은 자연 상태의 큰 심산을 두루 거친 뒤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줄기를 가르며 양평 양수리의 물머리까지 이어지는 약 166km의 산줄기를 한강기맥이라고 한다.

동고리'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횡성과 홍천사이에 뿌리를 둔 오음산은 정상은 군부대(제8839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남쪽 봉우리 사이를 배넘이(배넴이)라 하는데 태고적 물이 많아 배가 이곳으로 다녔다는 설화가 있다. 오음산 북쪽이 홍천군 쪽인데 이곳은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재로 불린다. 이 싸리재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임도를 따라가면 월운리가 나온다. 월운리는 산 북쪽이라 기온이 남쪽보다 비교적 추우며 눈이 잘 녹지 않는다고 한다. 즉, 첫눈이 내리면 이듬해 봄이 되어야 녹을 만큼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그래서 늘 구름이 끼어 있고 아침이면 안개가 서려있다. 그런 산이지만 달빛이 비칠 때는 구름 속에 가려진 환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여 산 아래 마을을 '월운(月雲)'이라고 한다. 월운리는 남궁씨에 얽힌 공주터, 승지골, 과녁터, 효자정문이 있다. 이 월운리에는 다른 제의는 없고 일 년에 한 번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전부이다. 개인 치성도 주로 산치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오음산 산신제는 연원이 400년이 넘는다고 한다. 이곳 주민 신현철(81)은, “이 마을에 우리 조상이 들어온 것이 400년이 넘는다. 나는 15대손이다. 월운리는 한 동네인데 골이 커서 절골과 공주터 두 군데서 제의를 지낸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를 올렸다. 6. 25 전쟁 시기만 제외하고, 심지어 일제시대에도 지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이 월운리에서 지내는 오음산 산신제는 두 군데서 지낸다. 한 마을인데도 두 군데서 지내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다. 즉 월운리는 6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 2, 3, 4반 마을을 진평마을이라고 부르고 5, 6반 마을을 공주터 마을이라고 부른다. 이 두 마을이 서로 분리되어 오음산 산신제를 각각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한 마을이 분리되어 두 군데서 지내는 이유에 대해 오음산에서 내려온 잔등(산줄기)을 기준으로 마을이 갈리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이러한 까닭에 행정상은 같은 마을이지만, 제의는 별도로 지낸다. 두 마을

모두 오음산 산신제는 정월 초사흘에 있다. 즉 동일한 날 산 제의를 지낸다. 결국 오음산 양쪽에서 산신 제의를 동시에 지내는 셈이다. 이 두 지역의 제의는 제의 목적이나 형태, 절차 등은 거의 동일하지만 제물이나 시간 등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제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 채록하고자 하며 산신제와 관련된 이곳만의 집단무의식 및 의미 등도 규명하고자 한다. 제의에 대한 월운리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 태도, 시각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여기에 내재된 의미 및 집단무의식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 중 하나이다.

1. 월운리 절골 산신제

월운리 산신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이 오래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세한 내용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조사에 집중하는 방식을 1차적 목적으로 한다. 월운리 산신제는 두 군데로 분리되어 지내는데 월운리 6반 중 1, 2, 3, 4반을 한 구역으로, 5, 6반을 한 구역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낸다. 우선 1, 2, 3, 4반은 진평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절골에서 산신제를 지내며, 5, 6반은 공주터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진평 절골마을 제의는 절골이라는 산골짜기에서 지내는데, 정월 첫 정일에 지낸다. 제의 시간은 오전 10시와 12시 사이이다. 절골이라는 명칭은 이전에 이곳에 큰 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절은 빈대가 하도 들끓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 폐사되었다고 한다. “한 마을인데 왜 두 군데서 지내는가 하면 산줄기 즉, ‘셋둥이’가 산 밑까지 죽 내려왔기에 월운을 2개의 지역으로 나누게 되었다”⁸⁾는 견해처럼 두 지역에서 지내는 이유를 마

7) 월운리 3반 공주터 마을 남궁상선 62세. 2016.5.30. 채록.

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어서 길이 끊어졌다. 진평은 1, 2, 3, 4반으로 구성되었기에, 5, 6반 2개 반으로 구성된 공주터보다 가구 수가 더 많다.

주민들에 의하면 오음산은 다섯 소리가 나서 오음산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오음산 산신령을 모신다. 음력으로 정월 초 3일이면 동네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사형통하고 마을이 잘 되라고 제사를 올린다. 2018년 올해는 15명이 참석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 모였다. 여자들은 제의하는 장소 근처에 오면 안 되며, 심지어 제의 준비도 남자가 한다. 또한 예전에는 황소한 마리를 올렸지만 지금은 소머리만 올린다. 소머리로 바뀐 것은 50여년 되었다.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소 껍질을 벗겨 제단 위에 간 후 그 위에 소의 나머지 부분을 올려놓았다. 이 제의가 끊어진 적은 6. 25전쟁 외에는 없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고 지속성이 강하다. 절골마을에서는 2018년 올해 첫 정일에 산신제를 지냈는데 그 날은 양력으로 2018년 2월 18일이었다. 올해 진평 절골 산신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제의를 지낼 때는 나이든 사람 중에 생기복덕이 좋은 분을 도가로 정한다. 젊은 사람은 안사람이 생리가 있어서 부정이 있을 수 있기에 나이든 사람 중에서 택한다. 도가로 정해진 집은 일주일 전에 금줄을 쳐서 사람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부정을 탄다. 올해인 2018년에는 박정기라는 분이 도가 집을 했다. 60세 정도 되었다. 도가 집에 금줄을 쳤다가 제의가 끝난 후 걷었다.

2) 절골 산신제는 10시에 지냈는데 제물은 소머리와 백설기, 사과, 밤, 대추, 배 등이다. 원래 백설기는 3되 3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면 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한 말씩 해서 제의 후에 나누어 먹는다. 제의를

8) 홍천 동면 월운리 2반 신현철(81세).

주관하는 도가 말고도 도통수라는 분이 있는데 도통수는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제물 중에 소머리가 허영게 보이는 것은 얼어서 그런 것이다.

3) 제의 절차는 처음에는 제물을 진설한 후 제관(회장)이 잔을 올린다. 이곳은 여산신이라 술을 쓰지 않고 감주를 사용한다. 예전에는 감주를 제의 전에 담갔다가 사용했지만 지금은 시중에서 파는 것을 사온다. 잔을 올리고 절을 한 후 축을 읽고 동네를 위해서 대통을 소지로 한 장 올린다. 대통은 문창호지 한 장으로 된 큰 소지로 이것을 들들 말아서 태우는 것이다. 그러면 ‘불빛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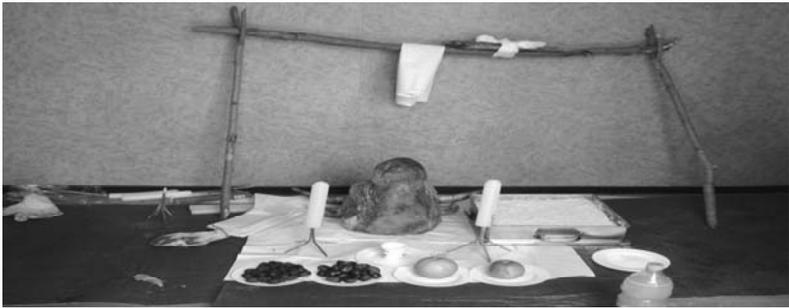
4)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소지를 올리는데 세대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라고 빌면서 소지를 올린다. 올 해는 이장과 젊은 또 한분, 이렇게 두 분이서 마을 사람들 소지를 올려주었다. 소지는 130호 중 100호를 올린다. 주민수도 많아서 한 참 걸린다. 절골 제의는 1, 2, 3, 4반이 올린다.

5) 2018년 올 해 산신제참가자는 15명이다. 옷은 평상복을 입는다. 이번 제의 전 회의 때 두루마기 등 예전에 입던 옷을 입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비행기 타고 달나라 가는 세월인데 뭘 따지나”라고 어떤 분이 반대해서 두루마기 등을 갖춰서 입지는 않았다. 올 해는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지냈다. 제의가 끝난 후에는 도가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헤어진다. 음식은 제의 음식뿐만 아니라 떡국도 끓이고 잡채나 부침개, 나물 등 이것저것 만든다. 제물로 사용한 소머리는 이번에 15만원에 사왔는데 마을 사람 중에 사갈 사람이 있으면 사간다. 이번에는 7만원에 사갔다. 반값에 사가는 셈이다. 제의에 사용할 돈을 각 집에서 5,000씩 걷었는데 제의를 다 끝내고 정산해 보니 이번에는 15,000원이 남았다. 이전에 소를 잡았을 때는 온 마을이 소고기를 조금씩 나누어 가졌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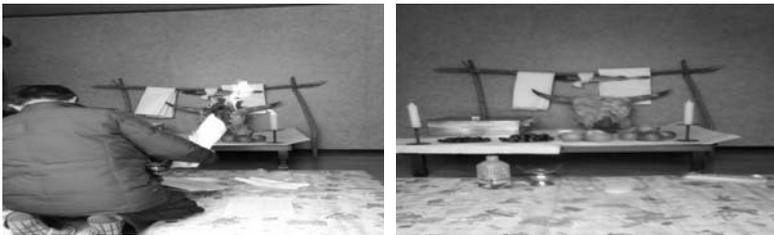
9) 홍천 동면 월운리 절골 김재철 77세, 2018.2.18. 채록.



〈절골 입구에 위치한 김재철 가옥과 절골 입구라고 써어 있는 팻말〉



〈2013년 절골 산신제〉¹⁰⁾



〈2018년 절골 산신제〉¹¹⁾

10) 2013년 2월 12일(음력 1월 3일) 흥천 동면 월운리 절골 산신제. 최명환 사진 촬영.

12) 2018년 1월 18일 월운리 절골 오음산 제물 차림과 대통(큰 소지)을 태우는 모습(김재철 사진 촬영).

진평마을 산신제는 이렇듯이 아직도 규모가 제법 크다. 하지만 제의를 하는 마음이나 옷차림 등, 제의 형식은 많이 느슨해졌다. 이전에는 백설기를 3되 3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의 미는 전달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편리에 따라 한 말 정도를 한다. 그 정도는 되어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전에는 소 한 마리를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산신제의를 지난 후에 전보다 잘 먹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의 때 옷을 차려입지 말자는 견해로 “달나라 가는 세월”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독특하다. 달나라 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산신한테 올리는 정성만은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이곳 주민들의 바람이다.

최근에 이렇듯이 100호의 소지를 올리는 지역은 상당히 드물다. 소지는 제의 비용을 낸 집만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산신제의를 대한 열의는 아직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올 해 제의를 주관한 김재철 제보자는 현재 노인회장이며, 절골 제의터 입구에 집이 있기에 그 마당에 <절골 가는 길>이라는 팻말이 놓여있다. 2018년 올 해 오음산 산신제때 대통소지는 별정계 잘 탔다고 한다. 따라서 올 해는 모든 일이 운수 대통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2. 월운리 공주터 산신제

월운리 5, 6반은 공주터라는 골짜기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남궁성씨를 가진 공주의 남편, 즉 부마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곳 지명이 공주터가 되었다. 어느 공주인지는 잘 모른다. 공주터는 원래 오음산 바로 밑 큰 바위 아래에 위치해 있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힘들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서 지낸다. 2018년 올 해 공주터 제의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1) 공주 터는 5, 6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인구가 절골에 비해 40%밖에 되지 않고 소지를 올려주는 가구 수도 절골에 비해 4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가를 정하는 것도 선택의 여지없이 돌아가면서 한다. 예전에는 여기 도 생기복덕을 보아서 그 해 그 해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올 해도 순서에 따라 했다. 또한 제사를 지내는 지관도 적당한 분으로 정한다.

2) 20일 전에 공주터 제의 지내는 장소 앞 입구에 금줄을 친다. 산 속 제의 장소에 아무도 가지 못하게 금지시키려는 목적이다. 도가집에서 감주를 담그는 등 준비를 한다. 음식 준비도 남자가 한다.

3) 2018년 새해 첫 정일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제의를 12시 안에 끝내야 한다. 올 해는 첫 정일이 2월 18일이었기에 이 날 10시에 시작했다. 그 전에 일찍 가서 눈도 치우고 제의 준비를 한다. 예전에는 예복을 입고 지냈지만 몇 해 전부터 평상복을 입고 지낸다. 제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많지 않아서 4-6명 정도이다. 올 해도 4명이 지냈다.

4) 공주 터 제물은 절골 제의에 비해 간단하다. 수소머리와 대추, 복어, 밤을 진설한다. 여기는 절골과 달리 제단이 없고 그냥 소나무 숲에 큰 신목에 창호지를 복어와 함께 흰 실로 묶어서 달아 놓고 신체로 삼아서 제의를 지낸다. 그 앞에는 제단이 있다. 올 해 수소머리는 15만원을 주고 사왔다. 소머리는 매 년 값이 다르다.

5) 제의 순서는 제관이 감주를 따라서 올리고 축원을 한다. 얼마 전부터 축문은 태우지 않고 사용한다. 축문을 다시 쓸 사람이 없어서다. 한 개를 가지고 년도만 바꿔 가면서 계속 사용한다. 주관은 반장이 하지 않을 때는 책임자가 따로 있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을 도통수라고 부른다. 올 해 축문은 무술년이라고 썼다. 축문을 읽을 때는, '축! 무슨 년 무슨 일'이라며 읽는다. 그 후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낸 사람은 다 올려주는데 2018년 올 해는 30집의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올린 후 마지막 배례를 하면 제의는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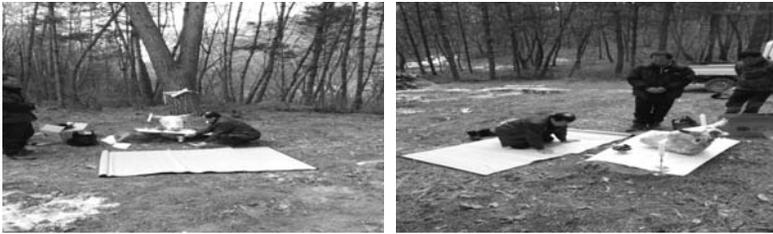
월운리 5, 6반은 40집이 조금 넘는데, 이 중 교회나 절에 가는 사람들이 10여 집정도 된다. 따라서 제의에 사용할 비용도 30여 집 정도가 났다. 인구도 적고 참여자도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주터 제의는 절골 제의에 비해 제물이 간략하다. “공주터 제의는 다른 어떤 제물은 사용하지 않아요. 떡도 하지 않아요. 소 한 마리와 대추와 밤만 준비해요. 그나마 소 한 마리는 소머리로 대체되었어요. 소는 그 자리에서 가죽을 벗긴 후 소가죽을 깔고 그 위에 소머리나, 소고기 등을 모두 진설한 후 지냈어요. 현재는 소 한 마리 대신 소머리를 올리는데 수소머리, 즉 황소머리를 사용해요. 이전 소를 제물로 올릴 때도 수소를 사용했어요. 이곳 오음산 산신이 여산신이기에 수소를 봉양해요.”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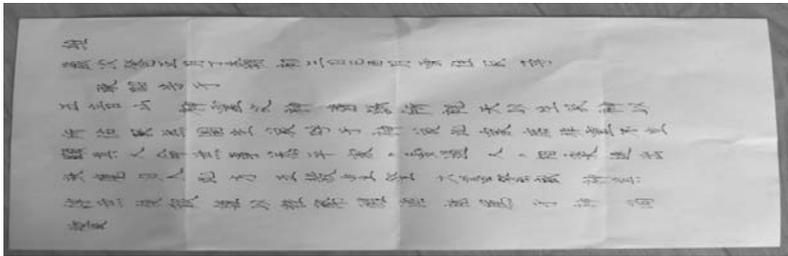
〈2013년 공주터 산신제〉¹³⁾

12) 홍천군 동면 월운리 5반 공주터 김만혁(65세).

13) 2013년 1월 3일(음력) 월운리 공주터 산신제. 이영식 사진 촬영.



〈2018년 공주터 산신제〉¹⁴⁾



〈공주터 산신 제의 축문〉¹⁵⁾

공주터에서 지내는 오음산 산신제는 절골 산신제보다 제물수가 적다. 떡이나 과일도 진설하지 않고 대추와 밤, 소머리, 감주만으로 제의를 지낸다. 진평마을이 4반으로 이루어졌고, 공주터는 2반으로 구성되었기에 인구수 자체가 진평마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가구 수는 40호 정도이다. 진평마을 가구 수가 130호인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듯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제물수를 적게 차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제의라도 진설하는 제물은 갖추어서 지내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주민들한테 그 이유를 물으면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전해오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지낸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다. 정월 첫 정일은 아주 추울 때이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면서 제의를 지낸다. 공주터는 산 속 큰 소나

14) 2018년 2월 18일(음력 1월 3일) 월운리 공주터 오음산 산신제. 김만혁 사진 촬영.

15) 월운리 공주터 산신제 제의 축문.

무(신목)에다 신체를 상징하는 한지와 포를 실로 감아 놓은 것을 매달아 놓고 나무 밑 커다란 바위를 제단 삼아 산신제를 지낸다. 제단인 바위 위에 흰 종이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초를 켜고 진행한다. 위 사진을 보면, 2018년 올 해에는 제물로 소머리와 대추, 밤을 진설했지만, 2013년도 제의 시에는 소머리만 진설하고 초를 켜고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올 해 제의도 월운리에서는 이렇듯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시행되었다. 오음산 산신제는 전통이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점에서 주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들이 산신이나 산신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 즉 향유의식을 어떤 지 알아보고 그 향유의식은 어떤 집단무의식을 투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향유자 의식을 기반으로 한 집단무의식(아키타입)

오음산 산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월운리, 개운리, 삼연리 등을 중심으로 5번 정도 방문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개운리는 월운리 바로 옆 동네인데 월운리에서 살다가 온 주민들이 몇 분 있어서 2번 정도 방문했다. 처음 방문할 때에는 주로 노인회장이나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점차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 외에도 흥천군청이나 흥천문화원 사이트를 통해 오음산 산신에 대한 이모저모를 채록하였다. 주민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대략 다음과 같다.

五音山은 '5개의 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이다. 그러나 왜 오음 인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5개의 마을(방남리, 어둔리, 상창리, 삼마치

리, 월운리 5개)에 거쳐서 있어서 오음이라는 설¹⁶⁾, 5명의 장수가 날 것이라는 의미, 장수가 죽자 다섯 가지 울음소리가 나서 오음이라는 설¹⁷⁾, 산이 위급하면 울기 때문에 오음이라는 설¹⁸⁾ 등이 있다. 또한 이 오음산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오래 전부터 내려온다.

오음산은 워낙 명산이라고 해서 큰 장수가 난다고 전해 왔어요. 그런데 인물이 나면 임금이 삼죽을 멸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씻물을 녹여서 오음산에 씻물을 부었더니 하루 지나자 말 울음 소리가 천둥처럼 나더니 삼마치로 말 세 마리가 넘어 갔대요. 오음산은 암산이래요.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 여신이라고들 해요. <홍천 동면 삼연리 신앙식(82)>

오음산 잣동구지에 일본 사람들이 쇠말뚝을 박아놓았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명산이라 혈을 끊어놔야 장수가 나지 않는다고 쇠말뚝을 박았다고 해요. <홍천 동면 월운리 진평 박희서(81)>

홍천과 횡성을 잇는 경계에 삼마치라는 험준한 고개가 있고 고개 마루에는 五音山이라는 높은 산이 있다. 옛날 이 고을 사람들은 오음산에서 다섯 명의 장수가 나리라는 풍수설을 믿었다. 당시에는 고을에서 장수가 나면 마을이 편안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장수가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음산 골짜기 바위굴에 구리를 녹여 붓고 쇠창을 쫓았다. 그랬더니 과연 장수의 혈맥이 끊겼는지 검붉은 피가 용솟음치며 다섯 개의 괴상한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고 울려왔다. 그 뒤 3일이 지난 저녁, 주인을 잃은 세 필의 백마가 나와 힘없이 고개를 넘어 어디론지 사라졌다 한다. 사람들은 그 후부터 이 산을 오음산, 이 고개를 삼마치라 불렀다 한다.

<홍천문화원 자료실> 발췌

16) 이학주(56세, 춘천시 후평동 거주) 조사.

17) 홍천문화원 사이트 설화 항목으로 유추.

18) 마을 주민 신현철(81) 언급. 2016.5.31. 채록.



〈오음산 전경〉

위 설화를 보면 오음산 경우도 우리나라 광포 설화중 하나인 <아기 장수> 설화의 편린을 지니고 있다. ‘장수가 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전해 왔고, 이를 저지하려는 ‘마을 사람(방해자)’과 장수를 태울 ‘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장수는 5명인데 그 장수를 태울 말은 왜 3마리인지가 궁금하다. 거기에는 어떤 장치나 변수가 있을 듯싶다. 어쨌든 말이 세 마리기에 삼마치(三馬峙)라고 불린다. 이렇듯이 장수와 관련된 지명이나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퍼져있는 광포설화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오음산 설화는 ‘장수’ 보다는 ‘5음(音)’에 더 주목한다는 점이다. 오음산의 경우, ‘다섯 소리’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반응을 통해서이다. 이곳 공주터에 선조들이 자리 잡은 후 아직까지 살고 있는 마을 주민 신현철(81)은 오음산 밑 월운리 공주터에서 나고 자라서 군대 갔을 때 외에는 외부로 나간 적이 없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오음산이 우는 소리를 어렸을 적에 들었다고 한다. 6. 25사변이 나던 아침이었는데 새벽부터 산이 울었다고 한다. 본 연구자가 ‘산이 우는 소리는 어떠냐?’고 묻자, 마치 바람소리처럼 “짜하다”며, “새벽부터 울었다. 노인들이 산이 운다고 해서 들었다니 웅하고 바람소리를 냈다. 그러나 바람은 전혀 없었고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 동네 노인들에 의하면 오음산은 영산이라 나쁜 일이나 재난이 있을 때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 이제껏 오음산이 온 것은 2번이라고 했다. 한 번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울었다고 한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6. 25사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산이 온 셈이다. 이런 점은 오음산의 영험성과 신성성을 밝혀주는 징표이다.

오음산은 산이 울어서 오음산이래요. 오음산이 우는 것을 한 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요. 새벽부터 우는데 싸하고 울었어요. 나도 직접 들었지요. 아침에 산이 운다고 해서 들으니 웅하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바람소리처럼 싸했지요. 6. 25 나던 해 봄에 그렇게 우니 노인네들이 징조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오음산은 예부터 영산이라고 전해져 와요. 그래서 가을 때는 원님이 직접 이 산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산에는 여자들이 열წ�도 하지 못해요. 산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는 나도 몰라요. 옛날 노인들의 구전을 들으면 오음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울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울어서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이 울면 나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울지 않을 때는 마을은 평안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듣기로는 오음산이 울었던 적은 두 번 정도래요. 그 외에는 평안한 마을이지요. 단지 80년대는 수해가 많이 났었어요. 또한 한해(旱害)를 많이 타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물을 파서 관촬아요.¹⁹⁾

오음산은 영산(靈山)이라는 것이다. 그 징표로는 나쁜 일이 있을 때 산이 울어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쁜 일이라는 것이 마을이나 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난’과 관련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음산은 그 스케일과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산이며

19) 신현철(81), 2016.5.31. 채록.

국가의 운명에 관여하는 능력을 지닌 오음산은 그 신성성이 중간에 훼손된다. 월운리 근처 마을 삼연리 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음산은 명산이라고 해서 큰 장수가 난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임금이 인물이 나면 삼죽을 멸했어요. 주민들이 산에 솟물을 붓고 하루 지났더니 말 울음소리가 천둥을 치더니 말 3마리가 삼마치로 넘어갔어요. 이곳은 여신, 암산이에요. (본 연구자: 어떻게 여신인지 알지요?)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공주터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고 산신제를 지내요. 산신제는 동면에서 노천, 월운하고 둘 뿐이에요. 성주 짓골에 몇 대째 살고 있어요. 짓골은 거리제이지요. 거리제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세웠다가 최근에는 하지 않아요. 낡아서 쪼개졌어요. 이때에는 돼지머리, 사과, 배 놓고 지내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잡것을 막아주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요. 기러기를 솟대 위에 세워두었는데 기러기는 나쁜 것이 들어오면 쪼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동네가 평탄 하라고.²⁰⁾

주민들의 의식 속에 오음산은 신이로운 전설이 대대로 전해내려 오는 등 명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도에 그 신성성 중 일부는 파괴되기에 이른다. 즉 한 명의 영웅도 아니고 다섯 명의 영웅을 배태시킬 능력이 있었던 오음산의 신성은 훼손되었다는 것이 설화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훼손에는 “산에 솟물을 붓거나”, “이 산에서 장수가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음산 골짜기 바위굴에 구리를 녹여 붓고 쇠창을 쫓은”것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두 표현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산에다 해코지를 해서 산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파괴시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이 때 파괴시킨

20) 신양식(77) 흥천 동면 삼연리. 2016.5.30. 채록.

부분이 ‘생산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오음산이 여산신이라고 할 때 생산성을 파괴한 것은 바로 여성에 있어서 젠더로서의 여성성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이다. ‘골짜기’, ‘바위굴’은 인류집단무의식으로 여성의 자궁이나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씻 물’, ‘구리’, ‘쇠창’은 모두 ‘남성성’을 상징하는 물질이기에 이 표현이 지니는 표상성은 결국, ‘남성성에 의해 여성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으로 환원된다. 산골짜기에 씻 물을 붓거나 산골짜기 바위굴을 쭈셔서 장수가 나오지 않게 한 것은 생산성을 파괴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오음산이 원래 지니고 있던 능력 중 젠더적 측면은 중간에 파괴되어 사라졌음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많은 여산신이 남산신으로 대체되거나 변모되는 것에 비해 오음산 여산신은 생산성만 파괴된 채 여산신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음산 산신에 대한 향유의식이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절골(진평마을) 주민들의 향유의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신이라서 황송아지만 사서 산신제를 지냈다.”
- ② “여신이라서 술 대신 감주(단술)를 올린다.”
- ③ “이쪽은 산나물 채취가 거의 없다. 외지 사람들이 삼은 캐러 들어온다. 사냥도 거의 없다. 동물도 이곳을 지나갈 뿐이지 여기서는 사냥을 거의 하지 않는다.”
- ④ “여산신이라서 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 오라고 치성 드린다. 그전에 돼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잡아서 바위에 피 칠을 썩썩 문지른 다음 그곳에 돼지를 묻고 온다. 더러우니까 그것을 떼내려 보내라고 그런다.”
- ⑤ “제의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남자어른들만 참여한다.”
- ⑥ “셋강웅덩이에 가서 목욕하면 금방 비가 온다. 셋강웅덩이는 지당 위 300-400m 위에 있는데 여자가 지저분하니까 쓸러나가라고 비가 온다.”

- ⑦ “절골 가는데 셋강움동에다가 치 쓰고 가서 목욕하고 그랬다. 산위 기우제는 남자들이 지냈다.”
- ⑧ “오음산이 여산이라 옛 말에 이곳은 쭈셔야 물이 나온다고 한다. 암산이라서 무조건 파야 나온다. 쌍스러운 이야기인데 여자와 남자와 상관하니까 남자가 판다.”
- ⑨ “월운산 잣동구지에 일본사람이 쇠말뚝을 박았다. 혈을 끊어나야 장수가 나지 않는다고.”
- ⑩ “씻꾼(포수)이 오음산에 멧돼지가 들어가면 못잡는다. 여자가 보호해주어서 그렇다.”
- ⑪ “사냥꾼이, 포수가 동물을 탄 데서 몰아왔어도, 오음산으로 들어가 숨으면 못 잡는다. 나오면 잡는다. 여신이 욕심이 많아서 움켜주고 내주지 않아서 그런다.”

공주터 주민들의 향유의식은 다음과 같다.

- ① ‘ “오음산이 여산인데 산신령이 여신령이라서 황소머리를 올린다.”
- ② ‘ “여신이라서 술 대신 감주(단술)를 올린다.”
- ③ ‘ “여신이라서 동물을 감춰주며 산삼을 많이 내준다.”
- ④ ‘ “겨울에 삼산을 캐서 대접을 해서 부모 보양을 했다. 오음산은 산삼을 잘 내준다.”
- ⑤ ‘ “국가에 변고가 생기면 울어서 알려준다.”
- ⑥ ‘ “공작산은 솟산 오음산 암산 이곳에 물이 흔하다. 여산신이라서 물이 흔하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 다른 곳은 물을 막아야 하는데 이곳에는 땅을 파야 물이 생긴다. 보를 판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했다.”
- ⑦ ‘ “남자들은 여자들 기우제에 참석하지 못했다. 오음산 중턱에서 히는 기우제는 남자들만 갔다. 지금은 군대 밑이라 통신대 가지 못한다. 예전에는 통신대 비하리(비탈) 바위 밑에서 군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우물 샘이라는 늘 마르지 않은 샘이 있는데 이곳에 수뚱이를 가지고 가서 목을 따서 피를 샘 곁 우물에 바르고 주변에 뿌린 후 이 돼지는 가지고 오지 않고 땅에 묻고 온다.”

- ⑧' "최근에는 산신제를 하기 위해서 20만 원 정도 든다. 굿당은 많이 들지만 이곳은 산신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동네 단합이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⑨' "여신이라는 것만 안다. 닭고기를 먹으면 3일 동안 산에 들어갈 수 없고 개고기를 먹으면 5일 동안 산에 올라갈 수 없다."
- ⑩' "이전에는 80명 정도 지금은 30명 정도 한 5000원씩 걷는다. 앞으로 재정난이 문제가 될 듯싶다. 마을의 안녕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단합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산신제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

이렇듯이 마을 주민들은 오음산 산신 제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나 의식,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오음산을 ‘여산신’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일했으며, 산신제는 어렵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여산신이라서 황소머리나 감주를 제물로 사용하거나 기우제때 수탉지를 사용한다는 점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월운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향유의식에는 특이하게도 상반된 시각이나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즉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향유의식에는 여산신이 신이하거나 경이롭다는 기본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특이하게도 여산신에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이라서 약간 떨시하거나 성적인 측면을 노골화시켜서 알보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향유의식은 절골이 ①, ②, ⑤, ⑩번의 경우이고, 공주터가 ①', ②', ③', ④', ⑧', ⑩' 번의 경우이다. 여산신이라서 동물을 감춰주며, 산삼도 많이 내주고, 영험하며,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우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고, 마을을 평화롭게 지켜주며, 너그럽고, 물이 흔하며, 치성을 드리면 비를 내려준다는 의식은 긍정적 징표이다. 거기에 비해서 부

정적인 향유의식으로는 절골이 ③, ④, ⑥, ⑦, ⑧, ⑨, ⑪번의 경우이고, 공주터는 ⑥', ⑦' 번 정도이다. 즉 오음산 신은 여신이라 욕심이 많아 움켜 쥐면 내주지 않아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산짐승을 잡을 수 없다는 것과 여자라서 질투심이 많아 여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도 남자들만 원한다는 점, 그리고 여신이라서 파야지만 물을 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는 물을 얻을 때 다른 지역처럼 물을 가두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파야지만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민망해 하거나 당혹해 한다. '쌍스러운 이야기'라고 전제를 붙이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자와 남자가 상관하듯이 남자들이 땅(여신)을 파야 물을 준다는 의식이다. 현재 이곳 산신제에는 여성들은 참석하지 못하며, 예전부터도 산제사에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은 다른 산제사에 제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성들이 관여하는 것과는 차별된다. 여자의 참석을 꺼리는 이유는 여자는 달거리를 하는 몸이라서 부정하다는 이유가 크며, 혹은 여산신이라 여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의 음식을 더 많이 차리고 있고, 제의에 참여하는 인원도 더 많은 절골 주민들이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견해는 공주터 보다 좀 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보자의 성품이나 인격 등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주터 제보자들은 보다 더 조용한 성품이 많았던 듯싶다. 오음산은 땅을 파야 물이 나온다는 동일한 사실도 절골 주민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두 지역 주민의 향유의식에 대한 변별성을 규명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를 추후에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어쨌서 오음리 여산신에 대해서는 이렇듯이 상반된 의식이 공유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동일한 속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으

로도,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양가적인 향유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오음산에 동물이 숨으면 찾을 수 없다.’는 명제도 긍정적인 향유의식으로는 “여신이라 동물들을 보호해 준다.”고 의식하기도, “여신이라 욕심이 많아 움켜쥐고는 내놓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물을 내려주거나 물이 풍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신이라서 물을 관장한다는 의식은 긍정적이고 신성한 의식의 발로이지만, 여자라서 성적인 행위가 가해졌을 때 비로소 물을 준다는 견해는 상당히 외설적이고도 여성 비하의식을 기반으로 한 향유의식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오음산 여산신에 대해서 이렇듯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산신은 예로부터 지신과 동급으로 수용된다. 지신은 인류 아키타입(archetype, 原型, 집단무의식)으로 여성성으로 대변되는 지모신(地母神)이며 신성성을 보유한다. 이렇듯이 세계적인 집단무의식으로 땅이나 산은 지모신을 투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초기 산신은 원래 여성이었다. 후에 산신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모하는데 이것은 <호경설화>가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현재도 여산신이 남산신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주민들의 향유의식에는 고대의 지모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산신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오음산 여신에 대한 긍정적인 향유의식은 고대로부터 생성되었던 ‘지모신’에 대한 집단무의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시각은 언제, 어째서 지역민들의 향유의식 속에 투영된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여성’을 폄하시켰을 때의 집단무의식이 여산신한테까지 투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선조 여성비하 의식이 여산신한테까지 투영된 것은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의

식이 가장 지배적일 때는 조선조가 가장 심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조선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고,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따라서 여산을 훼손하는 설화가 생성된 시기는 조선조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설화란 역사의 또 다른 언술방식이라고 할²¹⁾ 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젠더로서의 여성성 폄하가 극대화된 시기는 조선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만약 남존여비 사상이나 여성 비하의식이 고대로부터 생성된 것이라면 중간에 산의 신성적인 측면이 훼손된 사실에 대한 설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생성된 지모신격의 오음산 여산신은 도중에 젠더로서의 여신격이 파괴되면서 신격을 일부 상실한 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렇듯이 지모신격을 지닌 여신으로서의 산신의 이미지와 젠더로서의 여성성이 파괴된 여신으로서의 여산신의 이미지가 주민들의 향유의식을 통해서 추출되고 있다고 본다. ‘남존여비’ 사상은 기우제를 지내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즉,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올리는 기우제는 남자들이 주관해서 지내고 있고, 산 밑(절골 가는 입구) 개울가에서는 여자들이 기우제는 지낸다는 것이 그것이다. 상(높은 것)은 남자들이 관장하고, 하(낮은 것)는 여지들에 해당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도 산은 남성성을 표상하고, 개울(물)은 여성성을 표상한다는 원초적인 원관념을 상기한다면 두 가지의 이유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이 오음산 여산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역사적 지배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런 측면이 향유의식 속에 모두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대와 조선이라는 특별한 지배적 사상이 표상화 된 양가적 측면이 이 지역민들의 집단무의식 내재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21) 강명혜, 『『삼국유사』의 언술방식』, 『은지논총』 28권, 은지학회, 2011. p.135.

결국 오음산 여산신은 원래는 신성하고도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중간에 파괴와 훼손에 의해 신성적 측면이 일부 사라진 것이다. 신성하고도 풍요의 징표인 지모신격으로서의 표상은 젠더로서의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이 주민들한테 파고들면서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이 여산신한테까지도 투영되어 집단무의식화된 경우인 것이다. 결국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지모신에 대한 편린이 집단무의식화되어 전해진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조선조 ‘남존여비’ 사상이 집단무의식화된 것이다. 이렇듯이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주민들의 향유의식은 상반된 양가적 의식이 날줄 씨줄로 엮이면서 공존하고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전통 의식 중 특히 산신 제의에 주목하고자 했다. 따라서 산신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강원도 오음산 산신제의에 대해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 채록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으며, 의례 의미나 의례에 내재한 집단무의식(archetype)도 살펴보고자 했다.

오음산은 930m의 산으로 횡성, 홍천에 걸쳐서 있는데 본고에서는 홍천 쪽 마을인 월운리를 대상으로 했다. 월운리 산신제는 6. 25 사변 동안만 잠시 중단됐지만, 일제강점기 때도 중단된 점이 없으며, 지금까지도 한 마을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산신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의 산신제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를 조사, 채록, 연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월운리는 진평마을(월운리 1, 2, 3, 4반)과 공주터 마을(월운리 5, 6리)로 나뉘는데, 산신제는 따로 지낸다.

그 이유는 오음산에서 내려온 산줄기를 기준으로 마을이 갈리기 때문이다. 결국 오음산 양쪽에서 산신 제의를 동시에 지내는 셈이다. 이 두 마을 제의는, ①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제의라는 점, ② 제물로 황소를 올린다는 점, ③ 예전에는 황소를 통마리로 올렸지만 현재는 황소머리만 올린다는 점, ④ 여산신이라 술 대신 감주를 사용하며, ⑤ 간단한 주과포와 떡(공주터 제물수가 조금 더 많음)을 올린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공주터 제물수가 조금 더 많다는 점, 진평마을에서는 떡을 올린다는 점, 제의 시간이 차이난다는 점 등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 ‘오음’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채록되었지만, ‘신성하고 영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은 동일했다. 오음산 여신이 지나는 인식이나 그 태도를 분석한 결과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향유자들의 의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째는 여산신이 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부정적인 측면이었다. 여산신이라서 동물을 감춰주며, 산삼도 많이 내주고, 영험하며,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우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고, 마을을 평화롭게 지켜주며, 너그럽고, 물이 흔하며, 치성을 드리면 비를 내려 준다는 의식은 긍정적 징표이다. 거기에 비해서 부정적인 향유의식으로는 오음산 신은 여신이라 욕심이 많아 움켜쥐면 내주지 않아서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산짐승을 잡을 수 없다는 것과 여자라서 질투심이 많아 여자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도 남자들만 원한다는 점, 그리고 여신이라서 파야지만 물을 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는 물을 얻을 때 다른 지역처럼 물을 가두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파야지만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민망해 하거나 당혹해 한다. ‘쌍스러운 이야기’라고 전제를 붙이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자와 남자가 상관하듯이 남자들이 땅(여신)을 파야 물을 준다는 의식이다. 결국 긍정적인 측면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지모신에 대한 편린이 집단무의식화되어 전해진 것이고, 부정적

인 측면은 조선조 ‘남존여비’ 사상이 집단무의식화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결론내릴 수 있다. 이렇듯이 오음산 여산신에 대한 주민들의 향유의식은 상반된 양가적 의식이 날줄씨줄로 엮이면서 공존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점차 사라져가는 산신제를 채록해서 소개하고 기록하려는 목적이 우선이므로 본고에서는 향유자적 의식 부분을 소략하게 다룬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은 후고에서 보다 세밀히 천착해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인터뷰 : 홍천군 동면 월운리 3반 남궁상선(65세), 남궁선준(64세), 동면 월운리 2반 공주터 신현철(81세), 동면 월운리 오운선(1940년), 동면 월운리 진평 박희재(79세), 동면 월운리 진평 심정림(77세), 동면 월운리 진평 신양식(77세), 동면 월운리 5반 김재철(77세), 동면 월운리 5반 천진구(65세), 동면 개운리 김진식(84세), 동면 개운리 박희서(78세), 동면 개운리 김동기(75세). 동면 월운리 공주터 김만혁(65세)

강명혜 외, 『강원도 산간문화』, 지식산업사, 2014, pp.5-320.

강명혜, 『강원 산간 지역의 동제(洞祭) 양상 및 특성 - 산신제, 성황제, 거리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6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pp.3-29.

강명혜, 『홍천 지역의男神과女神 대비연구』, 『사회과학연구』 54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pp.3-30.

김의숙외, 『한국의 마을제당』, 국립민속박물관, 1997.

정윤수, 『홍천지역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pp.543-555.

『한국의 마을제당』 2권 강원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홍천군지』, 홍천군, 1989.

Jean Chevalier & Alian Gheerbrant, trans., John Buchanan-Brown. *A Dictionary of Symbols*. Blackwell, 1994.

Abstract

Actual Conditions and Enjoying Persons' Archetype of the Ritual
for mountain spirit at Oeum Mt. in Gangwon Province
— focusing on Wolunri —

Kang, Myeong-hye

Although a ritual for mountain spirit of Oeumsan Mountain in Gangwon province has been carried out continuously, there have been little research or recording in a book about it.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keep a record of research on a ritual for mountain spirit of Oeumsan Mountain and explain the stance of enjoying persons,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and its meaning.

Oeumsan Mountain is 930 meters long, stretching over Hoengsung and Hongcheon and the village near Hongcheon is Wolunri. Wolunri is divided into Jinpyeong Village (Wolun-ri 1, 2, 3, and 4 ban) and Gongjuteo Village (Wolun-ri 5, 6 ri) where a ritual for the mountain spirit has been carried out separately. The reason is that the village is divided based on mountain range.

Similarities of the ritual at the two villages are: ① it is for the goddess of Mount Oeum, ② it is offered by bull as a sacrifice, ③ in the past, entire bull was put up. However, now only the head of a bull is offered, ④ it is offered with Gamju, a sweet drink instead of wine for goddess, ⑤ simple Jugwapo and rice cakes are served. Also, there are small differences in the ritual between the two villages. Gongjuteo has a slightly larger number of offerings while Jinpyeong Villager raises rice cakes. The time of the ritual is also different between the two

This study also found that, although the meaning of 'Oeum' was recorded in various ways, similarities of 'meaning of the sacred and spiritual' were identical. An analysis of enjoying persons'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goddess of Oeum mountain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is the positive aspect of mountain goddess and the second is the negative aspect.

In other words, the positive aspect that reflects the archetype of mother goddess and female degradation (sexual aspect) formed from the Confucian point of view coexist.

The sacred side of being a goddess that protects the game and informs of the occurrence of hardship is a positive aspect. However, the ritual for goddess who has to dig the earth in order to gain water is negative. It is said that you need to make Bo, a reservoir for irrigation, to get water from remote area. That means you have to dig in the ground because it is occupied by a woman god. Also, there is consciousness that goddess does not like women because she is a femal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ositive aspect is from fragment of Geomosin that mother goddess is carried out by collective unconsciousness from ancient while the negative aspect is that the idea of the Joseon Dynasty of Namjonnyeobi that treating woman as inferior to me, has been carried out by collective unconsciousness.

Key Word: Oeum mountain, Ritual, Donje(Communal Village Ritual), Sansinje, Goddess, tale, resident, archetype, sacrifice an ox

강명혜

소속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 myonghye1212@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8월 2일 투고되어
2018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9월 7일 게재 확정됨.